

제24회 일본 전문가 초청 세미나

강사: Gilbert Rozman

소속: 프린스턴 대학 교수, 서울대학교 국제대학원 초빙교수

주제: Japan's Strategic Thinking Towards Asia.

일시: 2005년 9월 27일 (12 : 00 - 14 : 00)

*강연 내용

일본을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아시아와 관련된 일본의 전략적 사고는 무엇이고, 어떤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지에 대해 살펴보아야 한다.

일본이 아시아를 바라보는 관점에는 idealism, nationalism, realism의 세 가지가 있다.

1. Idealism

전후, 일본의 학계와 사회에서는 이상주의에 입각한 여러 가지 논의가 활발히 이루어졌다.

이상론적인 입장에서는 세계에서 발생하는 여러 문제들에 대해 타협이 필요한 이유를 공동의 문제들을 풀어가기 위한 것으로 보았으나, 이러한 태도는 그다지 현실문제에 있어서 잘 작용하지 않았다.

2. Nationalism

80년대 초, 일본은 미국과 같아지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는데, 이러한 노력은 걸프전을 통해 큰 좌절을 맛보면서 끝나게 되었다. 일본은 미국과의 연계를 통해 핵무기 보유를 꿈꾸지만, 오히려 미국으로부터 일본이 경제대국으로써 국제원조에 더욱 적극적으로 나서는 등의, 세계를 위해 공헌하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는 식의 비난을 받게 된다. 1990년대에 일본의 경제적 상황의 악화, 중국의 new nationalism 강조 등 위기가 다가오자, 일본은 그 동안의 아시아에 대한 낙관적인 시각에서 벗어나 이러한 문제들을 어떻게 풀어나가야 할 것인지

에 대해 진지하게 생각하기 시작했다. 그러나 일본은 여전히 90년대 말에 자신들이 힘을 잃어가고 있다는 점을 인정하려고 하지 않는 등, 아시아 지역에 대해 적극적으로 전략적 이익을 추구하고자 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았다.

3. Realism

90년대에 일본의 아시아에 대한 전략적 사고 부족이 국내외에서 크게 비판을 받으면서 현실주의적인 입장에서 아시아를 이해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기 시작했다. 중국의 성장과 일본 경제 상황의 악화 등은 어떤 면에서는 미국까지도 포함하는 아시아, 동아시아를 향한 전략에 대한 필요를 불러왔고, 이후 아시아에서 일본은 전략적인 이익을 얻어내기 위해 고심하기 시작했다.

한국은 1960년대에 아시아를 향한 출구로 일본의 전략적인 이익을 위해 중시되었으나, 1998년 오부치-김대중 간의 정상회담 결과, 한국에 대해 일본이 뭇든 해도 된다는 식의 오해가 생기게 되었고, 이후 북한 문제 이외에 일본의 전략적 이익 고려 대상에서 제외되었다. 80년대에 일본은 오히려 중국이나 러시아와의 전략적 관계에 대해 고심하는 모습을 보이기 시작했다. 그러나 에너지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 러시아에 대해 적극적으로 전략적 이익을 추구하는 모습을 보이던 일본은 고이즈미 정권에 이르러서는 미국과의 관계만을 중시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차츰 러시아와의 관계는 멀어지고 있다. 실제로 고이즈미 정권은 아시아를 향한 어떤 전략도 가지고 있지 않다. 아시아에 대한 어떤 전략적 접근도 고려하지 않은 채, 미국만을 고려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를 통해 미국에서는 많은 전략적 성공을 거두고, 이런 미국과의 밀접한 관계를 통해 국내에 많은 변화를 불러오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앞으로 아시아에 대한 일본의 전략적 태도가 크게 변화할 것으로 보이지는 않지만, 잠재적인 진전은 있을 것이다. 일본은 인도,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인도네시아 등에 관심을 가지고 있다. 다시 한국에 대해 말하자면, 최근 북한의 핵문제, 6자회담 등을 통해 한국이 다시 수

면 위로 떠오르는 것은 있다. 실제로 일본이 북한의 핵문제, 중국의 급부상 등 복잡한 정치적 상황을 감당할 수 있을 것 같지는 않지만, 한국에 어필하여 국제적 문제들을 해결할 것으로도 보이지 않는다.